

'올림픽 축제는 우리도 즐길 줄 알지'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장품 전시 29일까지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29일까지 도청 1층 전시실에서 소장품 전시 '올림픽 축제는 우리도 즐길 줄 알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서는 1988년 서울을 립픽 때 수도권에 집중된 미술 프로젝트에 문 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올림픽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던 전북 미술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 다.

황소연, 김수자, 홍현철 등 당시 청·장년이 던 전북의 작가들은 일본 이다(飯田) 미술연구 회와 공동으로 한일 현대미술전운영위원회를 결성, 전북예술회관에서 '88 서울올림픽 아트 페스티벌·한·일 현대미술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당시 전시에 출품됐던 문복철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오는 29일까지 도청 1층 전시실에서 소장품 전시 '올림픽 축제는 우리도 즐길 줄 알지'를 개최한다.

과 최원의 작품 두 점과, 37년 전 전시에 참여 했지만 지금은 원로 작가가 된 정복 작가들의 2000년대 작품까지 총 18점이 관람객을 맞는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90-6878)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통·현대 경계 넘나드는 실험적 음악 무대 펼쳐진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너나들이 8월 공연 '운은화의 무경계(無經界)Ⅲ'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과 30일 오후 4시, 총 2회에 걸쳐 열수마루 대공연장에서 '2025 무형 유산 너나들이' 8월 공연으로 '운은화의 무경계(無經界)Ⅲ'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무형유산 너나들이는 무형유산을 현대예술과 결합해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풀어내고, 관객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창의적인 공연이다.

특히 '운은화의 무경계(無經界)Ⅲ'는 현악기 이자 타악기인 양금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등 서로 다른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무대다. 양금 연주자 운은화는 직접 개발한 12음계 양금을 두드리고, 켜고, 뜯고, 누르는 등 다양한 연주법을 선보인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전자 양금을 더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을 들려준다.

공연에는 운은화를 비롯해 타악 이창현·이종섭·조한민·김동환, 가야금 진미립, 베이스 기타 함민휘, 드럼 한승이가 함께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악기와 리듬을 결합해 다층적인 소리의 확장을 시도한다. 무대에서는 〈신천년만세〉, 〈구라철사금성〉, 〈흔〉, 〈양금시나위〉를 포함한 총 9곡을 연주하며, 전통과 현대, 정형과 즉흥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형식을 선보인다.

공연 관람은 무료며,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0-1500, 1501)로 하면 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무형유산 기반의 창의적 공연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기회를 넓히고, 무형유산의 전승과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국팔도 한지기행 3회차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전국팔도 한지기행(아산)' 3회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19일 재단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전주천년 한지관 주관으로 지난 4월 1회차, 6월 2회차에 이어 추진되는 연속 기획으로, 한지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을 탐구하는 교육형 당일 치기 여정이다.

3회차 일정은 오는 9월 4일 전주를 출발해 아산 온양민속박물관과 이순신기념관을 방문한다.

온양민속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민속 전문 박물관으로, 한지로 만든 문방사우와 책, 족자,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이순신기념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명령을 전달하는 매개로서 한지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체험하

고, 이순신 장군이 직접 기록한 난중일기를 비롯해 다양한 한지 문화기록물을 만날 수 있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한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한지기행으로 시민들이 한지의 역사와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교통비와 입장료 등을 포함해 1인당 2만원이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12)

어디를 찾아와씨까이?

- 오상근 -

산전수전 다 겪은 동식으로서 는 역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보 통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 돈 10억 원이 너무도 달콤한 유혹이 었다.

"종훈아, 나다. 잘 있었냐?" 같은 조직 출신으로 서울에 가 서 자리를 잡고 있는 후배 서종 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녀석과는 교도소 같은 방과 같은 공장에서 지냈던 사이다. 건달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 놈이고 믿을 만한 놈이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타지역 건달이 하 나 있었는데, 이놈은 일반 재소자를 협박해 서 그자의 영치품에 손을 대고 있었다. 서 종훈은 그 영치품에 손을 댄 건달을 알아 차리면서 주먹으로 응징하다가 징벌을 받 고 한여름 독방에서 생똥을 싸며 한 달을 버티었다.

강동식과 마찬가지로 서종훈도 형기를 만 땅으로 꼭 채워서 출소했다. 동식은 박창수 의 청부를 수락하고 마음을 굳히면 서종훈 에게 일을 맡길까 생각하고 있었다.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요, 형님." "아, 사람쯤 알아봐라."

"누구입니까요, 형님." 동식은 서종훈에게 박창수가 동식에게 알 려준 강용대의 사는 곳과 나이, 인상착의 등을 말해줬다.

"예, 알겠습니다요, 형님. 곧 연락드리겠 습니다요, 형님."

그나저나 내일부터 사회봉사명령으로 호 암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영 내키지 않는다.

봉사활동 할 장소가 호암마을이라 해서 내비게이션을 찍었더니 아산면 반암리 호 암마을로 안내가 되었다. 고창읍에서 북서 쪽으로 대략 15킬로미터 지점에 호암마을 이 있다.

인천강을 따라 달리다가 호암마을로 들어 서려는데 우측으로 바위 절벽과 분리된 직 사각형 모양의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게 보 였다. 고창에도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외롭게 바위 같은 게 있었나 싶었다.

인천강을 건너는 호암교를 지나 호암마을 회관에 들어섰는데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차를 세워두고 회관 문을 열어보니 몸집이 뚱뚱한 노인과 마른 노인 둘이 앉아 있다가 동식을 쳐다봤다.



여기 봉사활동 하는 장소가 아니냐고 물 으려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보 호관할 직원이다.

왜 아직 안 오느냐고 하여 도착했는데 어 디냐고 동식은 물었다. 철거작업을 하고 있 는 곳이 보이지 않느냐고 보호관할관이 되 물어왔다.

회관 앞에 차를 주차하면서 둘러봤지만 주변에 철거작업을 하는 곳은 없었다. 노인 들에게 여기 철거 작업하는 곳이 있냐 물 었더니 그런 곳은 없다고 말한다.

"어디를 찾아와씨까이?" 뚱뚱한 할머니가 동식을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무래도 동식의 몸매와 머리스타일이 범상치 않아보였던 탓이다.

"여기 호암마을 아니에요?" 동식은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물 었다. 할머니들한테까지 가오를 집을 일은

없다. "호암마을이 맞긴 맞는데, 아예 다른 디 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마른 노인이 동식을 힐끗 쳐다보며 말끝 을 흐렸다.

"다른…… 데요?" "고창읍 신월리라고, 옛날에 그 빛이나 문둥이 마을이라고 있잖여, 문둥이 마을이 라고."

"문둥이가 뭐시여, 문둥이가! 한 뽀시기 라고 하지."

뚱뚱한 노인이 매운 눈으로 살집이 없는 할머니를 흘려보며 톱을 쳤다. 동식도 어렵 쯤이 들어본 기억이 있다.

"한 뽀시기?" "한센인요?"

"어, 맞아, 맞아. 그 한 뽀시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인자는 그런 사 람들은 다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은 그냥 어그하고 똑같이 호암마을이라고 한다드 만. 원래는 동혜원이라고 했지 아예."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진 게 분명하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 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 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 렸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 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등 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